新年辭

변혁의 중심에 호남이 있으니

병신년(丙申年)의 희망찬 태양이 떠올랐다. 벅찬 기대로 새해를 맞으며 우선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는 바 모두 이루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지난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답답한 한 해였다. 하지만 올 한 해는 뭔가 달라져야 하고 또한 끝내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그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 하나를 가슴에 품고 또다시 새해를 맞는다.

올해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정치판의 극심한 변화다. 그것은 올해가 단지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여서만은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의 정치 지형 또한 크게 출렁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옛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분당의 길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이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고 말았다. 이를 막지 못한 문재인 대표의 무능을 탓하기에도 이젠 늦었다.

총선을 불과 4개월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야권의 혼란과 갈등은 종식은커녕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야권의 분열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들이 호남 민심을 아전인수 격으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어찌 됐든 야권은 이제 문재인 중심의 친노 기존 야당과 안철수 신당 그리고 천정배의 국민회의 등으로 갈라지게 됐다.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거의 새로운 신당으로 빠져나갈 조짐이다.

과연 이들 중 어느 세력이 최종적으로 호남 민심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성 정당과는 다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세력만이 호남 그리고 전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은 우리 정치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늠자라 할 것이다.

1980년 광주항쟁 이후 호남은 우리 사회 민주화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1997년 역사적인 정권교체와 2002년 노무현 정권 탄생의 결정적 기반이기도 했다. 호남인들은 항상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도자'였고, 호남은 한국 정치의 중심추 역할을 했다. 올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의 선택에 유달리 관심이 쏠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올해 총선 결과는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어서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호남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열어 간다고 볼 수 있다. 대의와 명분을 좇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결집했던 호남 유권자는 이번 총선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 믿는다. 다만 어느 정치 세력이 됐든 참신한 인물을 얼마나 많이 영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호남 민심의 향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판과는 달리 행정의 경우 올해에는 조용히 성과를 내야 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광주와 전남 지자체장들도 이제 6개월만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 창출이 아닐까 싶다. 지금 항간에서는 출생 배경과 부모의 능력 여하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수저론'까지 회자할 정도로 청년 실업 해결은 지상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부모의 재력 순서에 따라 '금·은·동 수저'가 되고,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대다수 서민들의 자식은 '흙수저'니 '플라스틱 수저'니 하면서 처지를 비관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는 만큼 국가는 물론 지자체 역시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와 관련 어렵사리 국비 예산 30억 원을 확보해 사업의 기틀을 마련한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육성 프로젝트의 첫걸음이 바로 올해 시작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이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섬과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해 온 전남도 역시 올해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중 FTA 시대 대안으로 떠오른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확대와 고급화 전략으로 우리 농어촌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는 많은 지역 현안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시기이기도 하다. 사실상 올해가 개관 원년이 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자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기틀을 다질 때다. 당분간은 정부 지원에 의존한다지만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인의 이목을 끌 만한 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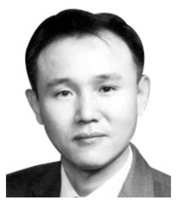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를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지원도 절실하다. 아직도 부족한 인프라를 보강하고 이주 직원 생활여건을 개선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정착하게 하는 노력 또한 고스란히 우리 몫이다.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 송정역~목포) 조기 완공의 관건 역시 지역 역량의 결집에 있다.

민선 6기 출범부터 의욕적으로 펼쳐 왔던 광주·전남·북 상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까지가 실천과제 선정 등 준비 단계였다면 병신년 올해에는 작은 성과부터 하나씩 바구니에 주워 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올해 창사 64주년을 맞은 광주일보 또한 호남 지역의 풍성한 한 해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다. 지역의 정당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 하고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우리 서로 보듬고 다독인다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 어떤 어려움도 언제나 앞장서서 해결해 왔던 호남인의 긍지와 지혜로 올해도 생동감 넘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새해 벽두, 다시 한 번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윤석천의 '우리와 경제'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던 조선과 선박 및 건설업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다. 그뿐인가.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부감사 기업의 10%가 한계기업인 상황이다. 빚으로 연명하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왜 이렇게 기업들이 망가지고 있는 걸까. 원인은 많다. 한데 정부는 그것을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찾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진단이 잘못됐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한 이유는 노조가 강성이어서도, 노동 유연성이 떨어져서도 아니다. 외려 노동 유연성을 강화시키고 노동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 환경은 어떤 상황일까.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면 한국의 노동 안정성은 상당한 수준에 있어야 한다. 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의 노동 안정성은 최악이다. 고용 안전성, 노동 시간, 소득 분배 등 각종 노동지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의 경우 평균 5.6년에 불과해 통계가 발표되는 OECD 25개국 중 가장 짧았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도 21.7%에 달해 OECD 29개국 중 5위에 올랐다. 연간 노동시간도 OECD 국가들보다 길었다. 근로자의 은퇴 시기도 긴 편에 속했다. 분배지표는 OECD 회원국 중 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미국 다음으로 열악했다.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3.9%로 이 역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마디로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살아날 리 없다. 노동 환경이 열악한데 소비가 늘어날 수 없다. 불안한 일자리에서 저임금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장이 가능할 리 없다.

좋다. 기업의 목표가 '이익 극대화'에 있는 만큼 최대한 비용을 낮추려 애쓰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지나치다. 신자유주의 물결을 등에 업고 기업은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계약직을 파견으로, 파견을 하청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조직에서 노동자를 떼어 버리고 있다. 이는 코미디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기업을 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 정의롭지 않다.

위의 통계에서 미국은 불평등 지표와 저임금 근로자 비중에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미국의 불평등이 이처럼 심화된 배경에는 '이익극대화'가 기업의 지상 목표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기업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를 떼어 버렸다. 그 과실은 극소수의 투자자와 경영진에게만 집중됐다. 반대로 노동 현장에서 배제된 보통 사람들은 가난으로 내몰렸다.

한데 한국이 이 길로 가고 있다. 노동 안정성이 최악이란 얘기는 노동 유연성이 극대화되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와 여당은 '노동 개혁'이란 명분 아래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취업 규칙을 노동자 과반 동의 없이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더 악화된 노동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하나,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노동 유연성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이다. OECD 통계가 말해 주고 있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단순히 주주 이익 극대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업은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있는 유기체이다.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주주만이 아니다. 노동자, 관계회사, 지역사회, 국가 에너지의 총합이다. 때문에 기업은 특정 주주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필요는 있다.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단, 그것이 불안정하면서도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거라면, 기업이란 권력이 사회 계층 구조의 최상의 위치에 있도록 하는 거라면, 무엇보다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대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누군가 노동자를 떼어 버리려 하는 기업을 견제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부의 집중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

새로운 해가 밝았다. 무너지는 기업을 살려야 한다. 동시에 추락하는 서민층과 노동자도 살려 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노동 유연성이 아닌 안정성의 강화에 있다. 그래야만 경제가 산다.

〈경제평론가〉

無等鼓

멘토와 멘티

한국 바둑계의 전설이자 유일하게 국수(國手)로 불리는 조훈현은 일본 현대바둑을 태동시킨 '세고에 겐사쿠'의 내제자(스승의 집에서 기거하며 배우는 제자)였다. 조훈현은 작고한 스승의 교육법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내제자로 있던 9년 동안 선생님께 바둑을 배운 적은 그야말로 손가락을 꼽을 정도다. 선생님은 지도대국에 인색하셨고, 아주 가끔 복기를 해 보라고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말씀도 잘 안 하셨다. 어린 마음에 서운한 생각도 들고 걱정도 됐지만,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몇 년 후에야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선생님이 내 얼굴을 골똘히 들여다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답이 없는 게 바둑인데 어떻게 너에게 답을 주겠느냐. 그 답은 네 스스로 찾아라. 답은 없지만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바둑이다."

조훈현은 "스승은 그저 방향만 제시할 뿐, 혼자 공부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런 교육 방식 덕분에 나는 단 하나의 묘수를 찾아내기 위해 수많은 밤을 끙끙거리며 황금 같은 10대를 보낼 수 있었다"고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평생을 승부의 세계에서 살아 온 조훈현이 최근 펴낸 책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에는 '멘토가 범람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고민을 상담해 주는 인생 멘토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 그만큼 혼자 힘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쓰고 있다. 뛰어난 인물을 평생 스승·멘토로 모시며 바둑 황제로까지 등극, 실력을 입증해 보인 조훈현인 만큼 멘토에 대한 나름의 통찰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누가, 누구의 멘토'라는 이야기들이 부쩍 많이 나돌고 있다.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이겠지만, 실제론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오래가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신뢰보다는 오히려 반목과 갈등이 더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멘토와 멘티'는 포장일 뿐, 그저 자신의 잇속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였던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종교칼럼

계획을 세우고 새해를 시작합시다

김 성 원
광주 중흥교회 목사

새해가 오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냥 새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묵은 것들을 이미 지나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좋습니다. 모든 실수, 잘못, 미흡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과거에 묻어버릴 수 있어 좋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우리 인생이 그냥 한 줄로 죽 이어져 가는 날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해를 주시면서 이번에는 한 번 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테판 더글라스'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라는 책의 서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아내에게 '오늘은 남쪽 밭을 갈러간다.'고 하면서 트랙터를 몰고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만 밭으로 가는 중간쯤에 트랙터 기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들판 한 가운데 트랙터를 세워둔 채, 깡통을 꺼내 들고 주유소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유소에 도착해 막 깡통 뚜껑을 열려는 순간, 아침에 돼지 밥을 주지 않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급히 연료 깡통을 주유소에 맡겨놓고, 돼지 아침밥을 주기 위해 옥수수 창고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옥수수자루를 보자 감자구덩이에 묻어두었던 감자에서 싹이 트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 먹이 자루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다시 감자구덩이를 향해 뛰어갑니다. 그런데 감자구덩이로 가는 중간에 높이 쌓여 있는 장작더미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집을 나올 때 부인이 장작개비 몇 개를 가져달라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자구덩이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장작개비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농부 옆으로 병든 닭이 한 마리 지나갑니다. '저 닭이 왜 병들었지?' 농부는 다시 장작개비를 팽개쳐두고 병든 닭을 좇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해는 뉘엿뉘엿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그 때까지도 농부의 트랙터는 들판 한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평생을 쉬지 않고 바쁘게 뛰어다녔더라도 마지막에는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매번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것일지라도 계획을 확실히 세워놓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유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을 잘 판단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버려 인생을 낭비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운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것을 계획하십시오.

둘째, 목표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목수 아버지가 못질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그것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 망치로 작은 못을 탕탕 박는 것이 재미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못질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얘야, 못질을 잘 하려면 네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단다. 못만 쳐다봐라. 그러면 처음에는 그것이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점점 크게 보일 거야. 그렇게 해서 못 대가리만 때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네가 만약 시선을 못에 고정시키지 않고 내리치는 망치를 바라본다든지, 한눈을 팔면 손가락을 찧고 말 거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계획을 실현해 가십시오. 미국의 석유 재벌, 존 매칼은 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전공을 살려 한 폐광을 조사한 뒤 석유가 나오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몇 년간 땅을 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무려 6000피트(1800m)를 팠는데도 석유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빚쟁이들이 몰려와 아우성을 칩니다. 가족, 친구, 친척마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작정하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것마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살에 실패하고 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살아났으니 죽을 때까지 땅이나 파고 보자. 끝장을 보자.' 그는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 70피트(20m) 정도를 더 파 들어가자 1800미터를 파도 안 나왔던 석유가 엄청나게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고 계획을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병신(丙申)년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수저·흙수저 탓 말고 밝은 마음부터 가지자

몇년전 대학교를 다닐 때 용돈을 벌려고 사무용 가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육체적으로 힘든 가구점 일의 특성상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 바뀐다. 나는 방학 때마다 꾸준히 하다보니 나름 오랜 경력이 쌓인 '고참 알바생'이 됐고 새로 온 신참들의 교육까지 맡았다.

어느날 겨울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 자신의 이름을 장명수라고 밝히는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자가 인사했다. 나이는 동갑이었다. 대게 둘이서 가구를 나르고 설치하기 때문에 손발이 잘 맞아야한다.

하지만 명수는 어딘가 움직임이 어색했고 말귀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명수를 질책하는 일이 늘었고 서로 기분 상하기 일쑤였다.

신년을 맞아 열린 회식자리에서 명수는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3년전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단다. 원래 걷지도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집에서 1년간 기어다니며 피나는 재활 끝에 간신히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은 운전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한없이 작아짐을 느꼈다. 명수보다 가구점 일은 잘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노력'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었는지 자문했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단어가 유행한다고 한다. 소위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편하게 살고 누구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산다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대변하는 말이다.

나 역시 삶이 힘들 때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럴 때마다 명수를 떠올린다. 내가 생각하는 힘든 삶이 명수에게도 힘든 삶일지. 신년에는 청년들이 조금 더 밝은 마음을 가져보길 바란다.

▲김명신·광주시 남구 주월동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